임실군, 한국 양궁 메카 도약

전북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5월 준공… 양궁 발전 · 시설투자 적극 지원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이 한국 양궁의 메카로 떠오르며,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이 한국 양궁의 메카로 떠오르며,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군은 국제양궁장이 위치한 임실군 오수면에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총 사업비 52억8400만원을 투입해 지상 4층, 26실 5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가 건립 중인 가운데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선수 및 내방객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가 확충되고,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국제적 양궁 메카로 한 차원 더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심 민 군수의 각별한 양궁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올해도 양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양궁 발전과 시설투자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오수면에 자리 잡은 전북특자도 국제양궁장은 73,683㎡ 부지 면적에 경기 운영시설, 주 경기장, 연습경기장 등 2018년 10월 준공, 임실군이 위탁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각종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양궁 체험 장소로 이용되는 등 임실 양궁의 주된 시설이다.

최근 3년간 양궁장 사용 편의 증대를 위해 음향시설, 안전 펜스, LED 전광판, 옥상 방수, 그 외 소규모 시설 보수 등을 통해 운영상 불편했던 사안들을 해소하고 꾸준히 보완해 왔다. 올해에도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크고 작은 시설 개선을 보완하여 향후 전국대회 개최 등 주요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의 장소로 명실상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에서는 매년 화랑기 시도 대항 양궁대회뿐만 아니라 임실N치즈배 전국생활체육 양궁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규모대회 유치와 개최를 통해 양궁 메카로서의 임실군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는 쾌거를 올렸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 양궁부 학생들이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수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하며 기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양궁 기반 시설을 보완 확충하는 등 체육 인재 양성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16일 최경식 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국소장,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의 선제적 확보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1조990억원 규모 신규사업 97건 발굴… 부서별 협력방안 등 모색

남원시는 16일 최경식 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국소장,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의 선제적 확보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 부서가 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과 연계하고 이를 고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추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기추진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 총사업비 1조 99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97건을 발굴하였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 사업에 대한 부서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사업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KTX남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총사업비 미정) △그린바이오소재 원료공급센터 구축(98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160억원) △국립 전통예술 Hi-Tech 복합 교육원 건립(총사업비 미정) △지리산 에코 캠프 조성(100억원) △남부권 드론MRO센터 구축(100억원) △남원 쌍교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254억) 등이다.

시는 발굴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 논리와 타당성을 보완하고 부처설득 논리를 만들어 연초부터 부처를 조기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미반영 된 사업에 대해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해 대응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 대응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208억원이 증가한 1,65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도 총사업비 383억원이 증가한 2,403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당분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유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국가예산 사업이 축소되는 등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 철저한 논리개발과 함께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내실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자매결연 아동 ·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최경식 시장, 물품 전달 · 어르신 · 관계자 위문 · 격려

남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1월 15일 자매결연 아동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과일 등 격려 물품을 전하며 온정을 나누었다.

최경식 시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는 자매결연 학생을 방문해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또한 관내 노인요양 시설 및 정신요양 시설 등을 방문해 과일과 김부각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 내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위문하고 격려했으며, 오는 21일에는 35사단 백마여단과 남원순창 대대를 방문해 시민의 안전과 향토방위, 대민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관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 없다"며, "시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전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

순창군이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한 '맞춤형 농작업 대행과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4억 3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농업 소외계층의 영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의 주요 지원 대상은 밭작물 재배 면적이 5,000㎡ 이하 영세농 중 고령, 여성, 장애인 등이며 경운, 로터리, 비닐피복, 퇴비살포, 콩 탈곡 등 밭농사 위주의 작업을 지원한다. 특히, 작업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농가에 한해 관내 읍·면 평균 작업수수료의 최대 59%까지 감면된 요금을 적용해 영농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또한 군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통해 콩대, 깻대, 고춧대 등 농업부산물을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40억원 지급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40억원을 설 연휴 이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원은 2024년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혜 대상자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및 연접 농지를 경작하는 7,076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6,192헥타르에 달하며, 제곱미터당 64.5원의 단가로 0.1~3.0헥타르 한도 내에서 면적별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군은 이미 지난해 12월 민선8기의 핵심 공약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71억원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 국비로 지원되는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금 162억원과 전라북도 지원금인 논농업 환경 직불금 6억원도 함께 지급돼, 지역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비 직불금 지급을 통해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임실군이 자동차세를 1월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는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년에 한 번,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고 일부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므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7%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할인 혜택이 크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교육생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에서는 신규농업인 및 작목전환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영농기술 전수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40세 미만 청장년층 이거나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농업인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시민뿐 아니라 기존 작물에서 새로운 작물로 변경하시거나 변경 예정인 사람도 가능하다.

특히, 농식품부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는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정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남원형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사업으로 새로운 작물 재배를 시도하는 농업인과 선도농가를 연결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